

# 설화에 나타난 조선시대 무관의 형상과 그 의미\*

정재민\*\*

- I. 들어가는 말
- II. 설화에 나타난 조선시대 무관의 형상
- III. 무관의 형상에 함의된 사회문화적 의미
- IV. 나오는 말

## <국문초록>

조선은 성리학을 지배이념으로 삼아 문치주의 혹은 승문주의 정책을 추진했던 사회였다. 이러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체제 아래 무관들은 양반층의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문인들과 차별되는 삶을 강요받아 왔다. 이러한 문존무비의 사회풍조 속에서 설화 전승자들은 조선시대 무관을 장부, 의협, 감사자, 명관, 선비의 형상으로 인식했다.

장부로서의 형상은 주로 무인의 태생적 기질이나 성향과 관련이 깊은 반면에 의협, 감사자, 명관 및 선비의 형상은 현실세계 속에서의 성취와 연관된다. 이들 중에서 의협과 감사자, 명관의 형상은 주로 시대적 상황 변화에 의해 선택적으로 부각되는 공적 면모에 해당하며, 이는 현실적 지향점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그에 비해 선비의 형상은 문무반 모두에게 공통되는 보편적 면모이자 이념적 지향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다섯 가지 무관의 형상은 문치주의 시대를 살았던 조선시대 무관들의 태생적, 현실적, 이념적 면모를 잘 보여준다. 또한 현실적 지향적 으로서 의협, 감사자, 명관의 형상을 갖추었다는 점은 곧 문무반 사이의 차

\* 이 논문은 2019년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국고과제 연구비를 지원받아 작성되었음.

\*\* 육군사관학교

별을 극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무관의 위상을 정립하고 명실상부한 사회적 존재로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나아가 의협·명관·선비의 형상은 조선시대에 들어와 비로소 나타났다는 점에서 이전시대에 비해 진일보한 국면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아울러, 다섯 가지의 형상들은 문인과 무인 사이에 발생하는 충돌과 대립, 화해와 조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 좋은 단서를 제공한다. 문관과 무관 사이의 대립은 표면적으로는 문무차별에 대한 저항과 좌절을 의미하지만, 이면적으로는 장부-명관의 형상 혹은 사적-공적 인식의 대결로 해석된다. 물론 이들의 대결은 명관의 형상과 공적 인식의 승리로 귀결되며, 이는 무관들 역시 공적 존재로서의 명관의 면모를 우선시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핵심어: 조선시대 무관, 무관의 형상, 장부, 의협, 감사자, 명관, 선비, 문  
치주의

## 1. 들어가는 말

조선시대의 무관은 양반의 일원으로서 지배체제의 한 축을 담당했던 계층이었으나 실제로는 문관과 동등한 처지는 아니었다. 문반과 무반 사이에는 제도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엄격한 구분이 존재했으며, 이러한 구분은 무관에 대한 차별로 이어졌다. 예컨대 동반 6품과 서반 4품이 동일시되었으며, 군사요직이나 서반관서의 우두머리도 문관들에게 제수되었다.<sup>1)</sup> 따라서 조선시대 내내 무신의 전반적인 지위는 문반에 비해 낮았던 사실상의 문존무비(文尊武卑)의 풍조가 지속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sup>2)</sup>

이와 같은 사회구조 속에서 무관은 문관과 다른 존재로 인식되었을 것으

1) 박용운, 「고려전기 문반과 무반의 신분 문제」, 『한국사연구』 제21·22합집, 1978, 65~66면; 한충희, 「무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제8권, 정신문화연구원, 1991, 187~188면; 한충희, 「문반」, 위의 책, 제8권, 375~376면; 이성무, 「양반」, 위의 책, 제14권, 732~734면.

2) 이성무, 『조선초기 양반연구』, 중판, 일조각, 1981, 82~83면; 이성무, 『조선 교육제도의 정돈과 과거제의 새 모습』, 『한국사시민강좌』 제46집, 일조각, 2010, 97면; 유진 Y. 박, 『무과의 세계』, 위의 책, 140면; 유진 Y. 박, 유현제 역, 『조선무인의 역사 1600~1894년』, 푸른역사, 2018, 64면.

로 짐작된다. 이런 측면에서 본고는 문치주의를 표방했던 조선시대 무관들에 대한 전승집단의 인식과 그에 따라 나타난 무관의 형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즉, 무관을 상대적으로 비천하게 여겼던 조선시대의 사회적, 문화적 분위기 속에서 과연 설화 전승자들은 무관들을 어떠한 존재로 인식했는지, 사회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지, 무관들은 가치를 추구했는지, 나아가 문인과의 불가피한 갈등과 대립을 어떻게 해소하려 했는지 등에 대한 인식을 다루어보기로 한다.

이를 통해 설화에 나타난 무관들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형상을 확인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러한 형상 인식은 조선시대 무관들에 대한 당대인 혹은 후대인들의 사유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것은 설화 전승집단이 생각했던 무인들의 존재 가치와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의 일단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 II. 설화에 나타난 조선시대 무관의 형상

전승자들이 설화 속에 등장하는 ‘무관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가?’ 또한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무관은 어떤 성격의 인물로 그려지는가?’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조선시대 무관들은 크게 장부(丈夫), 의협(義俠), 감사자(敢死者), 명관(明官), 선비의 형상 등 다섯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첫째, 장부의 형상은 무관을 남아(男兒), 대장부(大丈夫), 장사(壯士) 등으로 인식하는 경우이다. 둘째, 의협의 형상은 무관을 협객이나 협사, 호협 같은 존재로 생각하며 그러한 행동을 보여주는 인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이에 해당한다. 셋째, 감사자(敢死者)로서의 형상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움에 임하는 장수(將帥)나 무장(武將), 영장(營將), 진장(鎭將) 등으로 무관을 인식하는 경우이다. 넷째, 명관(明官)으로서의 형상은 무관을 백성을 사랑하고 선정을 베풀며 일처리가 당당하고 명료한 수령이나 목민관, 벼슬아치로 생각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다섯째, 선비로서의 형상은 무관을 세속의 명리를 떠나 학문에 몰입하고 예악과 법도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군자, 대유(大儒), 대인, 학자라고 받아들이는 인식이다.

## 1. 장부(丈夫)로서의 형상

장부로서의 형상은 무관을 남아, 대장부, 장사(壯士) 등으로 인식하는 경우이다. 이때 설화 속에 등장하는 무관은 태생적으로 무인의 기질을 타고난 사람으로서 기개와 포부가 남다른 존재, 뛰어난 용력을 지닌 존재로 그려진다.

### <남아(南怡)>

남아는 나이 열일곱 살에 무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세조의 사랑을 몹시 받았다. 그는 날래고 용맹이 남보다 뛰어나서 북쪽으로 이시애(李施愛)를 치고 서쪽으로 건주위(建州衛)를 정벌하는 등 다른 사람들보다 그 공이 월등히 뛰어나 등급을 정함에 있어 1등에 책훈됐다. 그가 회군할 때 시를 지어 말하기를, “백두산 돌은 칼을 갈아 다하고, 두만강 물은 말을 먹여 없어졌네. 남아(男兒)가 스무 살에 나라를 평안히 하지 못하면, 후세에 그 누가 대장부(大丈夫)라 부르랴.” 했으니 그의 우쭐함이 이와 같았다. 이내 병조판서가 되었으니 이때 나이 스물여섯이었다.<sup>3)</sup>

열일곱에 무과에 급제하고 스물여섯에 병조판서에 제수되었다가 그 이듬해 역신의 누명을 쓰고 처형된 남아 장군의 젊었을 적 이야기이다. 이 설화는 무장의 기개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이지만, 조선 초기를 살았던 한 무인의 형상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새삼 그 가치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이야기 속에서 남아 장군은 ‘남아’ 그리고 ‘대장부’로 그려진다. 남아는 현재의 자신이라면 대장부는 후세인들에게 기억되고 싶은 미래의 자신이다. 따라서 남아와 대장부는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다. 하나는 현재적 형상이라면 다른 하나는 미래적 형상이다. 이런 점에서 대장부는 남아의 확장된 모습 혹은 발전된 형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임관(林灌)>과 <박탁(朴鐸)>은 상관에 대한 의리를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장부의 면모를 보여준다. 임관은 김천일(金千鎰) 휘하의 의병이었다. 그런데 진주성 싸움에서 김천일이 순절하자 “슬프다! 장부(丈夫)가 이미 남에게 알아주는 일을 입었는데 차마 그로 하여금 홀로 죽게 한단 말인가.” 하고는 세상을 등진다.<sup>4)</sup> 박탁은 효종 때 이완(李浣)이 발탁했던 인물인데,

3) 강효석, 이민수 역, 『대동기문(상)』, 명문당, 2000, 94면.(이하 서명과 면수만 제시)

4) 『대동기문(중)』, 117면.

효종이 왜 그리 수척한지 묻자 “장부(丈夫)가 세상을 얻지 못했으니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고 대답한다.<sup>5)</sup> 쭉대머리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임금 앞에서 주눅 들지 않고 자신을 장부라고 언급된다.

또한,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장부의 형상을 내세우는 경우도 있다. <하경복(河敬復)>은 왕자의 난 때 죽을 위기에 처하자 태종에게 달려가 “저와 같은 장사(壯士)를 죽여서 무슨 유익함이 있습니까?” 하고 하소연하여 살아난다.<sup>6)</sup> 숙종 때의 무신 <양익표(梁翼彪)>는 문신이었던 양주목사의 뺨을 때렸다가 처벌을 받게 되자 “천자의 배 위에도 필부의 발이 올라갈 수 있는데, 태수의 수염 주변에 장사(壯士)의 주먹이 닿았다고 무슨 큰 일이 있었습니까?” 하고 항변하여 문무반의 위계를 어긴 위중한 잘못을 용서받는다.<sup>7)</sup> 물론 양주목사의 일처리가 부적절했다는 점도 있지만, 양익표의 무인다운 당당함을 높이 평가하여 그의 죄를 용서한 것이다. 이처럼 하경복과 양익표가 보여주는 인식은 바로 장부적 형상의 또 다른 면모라고 할 만하다.

## 2. 의협(義俠)로서의 형상

‘의협’이란 협객(俠客), 협사(俠士), 호협(豪俠) 등을 아우른 말로서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위험에 처한 약자를 구원해주는 의로운 존재를 뜻한다. 무인담에 등장하는 몇몇 주인공은 자신을 이러한 성격을 지닌 의협적 존재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다.

### <임자강(任自強)>

숙종 때에 병조의 서리 임자강은 호협하여 기운이 좋고 용력을 겸하였다. 예전에 병조의 일로서 충주에 일을 처리하러 갔는데 협객 몇 사람과 함께 갔다. 새벽녘에 충주 땅에 들어서는데 마침 길에서 수십 명이 가마 한 채를 에워싸고 가는 것을 보았다. 가마 안에는 어떤 여자가 울부짖으며 하늘에 호소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 임자강이 동행에게 말하여 공격하고자 하자, 일행들이 저들은 숫자가 많아 대적하기에는 위험하다고 하였다. 임자강이 강개하여 말하였다. “장사

5) 이월영·차귀선 역, 『청구야담』, 한국문화사, 1995, 311~313면.

6) 성현, 『용재총화』 (민족문화추진회, 『국역 대동야승』, 권1, 중판, 민문고, 1989, 79면.)

7) 심계, 신익철 외 역, 『교감역주 송천필담(1)』, 보고사, 2009, 480~481면. (이하 서명과 쪽수만 제시)

가 의로운 일에 죽음은 또한 유쾌한 일이다.” 바로 칼을 뽑아들고 소리치며 먼저 앞장서 나가자, 다른 두 책괘도 떨쳐 일어나 재빠르게 손으로 치고 발로 차고 하였다. 수십 명의 무리가 가마를 길 왼편에 버리고 쓰러지면 흩어져 달아났다.<sup>8)</sup>

<임자강>은 전형적인 호협형 무인담에 해당한다.<sup>9)</sup> 이때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무관은 의협적 형상을 보여준다. 즉, 임자강은 호협한 존재, 위험을 무릅쓰고 의로운 행위를 일삼는 존재, 자신의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바라지 않는 존재로 규정된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의로움을 실천하는 존재인 것이다.

이런 부류에 속하는 이야기로는 <영남무인(嶺南武人)>과 <홍무변(洪武弁)>을 들 수 있다. 영남무인은 악한 종놈에게 납치된 처녀를 구해 줄 때 “의분이 끓어오르고 의기가 뻗쳐올라” 그를 처치한다. 또한 자신을 거두어 달라고 처녀가 부탁하자 “내가 이 일을 돕게 된 것은 단지 한 조각 조그만 의기 때문이었소. 그리고 그 종놈이 내 화살에 맞아 죽은 것은 나의 용맹이라기 보다는 그 죄악이 차고 넘쳤기 때문이오. 나는 손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니 내가 무슨 힘이 되었겠소. 부디 소저는 복 많이 받으시고 잘 살기 바라오.” 하고는 훌쩍 떠나 버린다.<sup>10)</sup> <홍무변>의 주인공 역시 과거에 자신이 위기에 처한 부인을 구원해준 일을 회상할 때 “내가 그 때에는 분기를 참지 못하여 중을 때려 죽였는데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땅히 그리했을 것이네.”라고 하면서 부인의 보은을 감사하게 여긴다.<sup>11)</sup> 이처럼 영남무인과 홍무변은 자신을 ‘분기를 참지 못하는 존재’로 그려지며, 주인공이 악승을 징치한 일을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인식한다. 이러한 인식은 바로 의협적 형상의 일면이라고 할 만하다.

### 3. 감사자(敢死者)로서의 형상

감사자로서의 형상은 말 그대로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과 치열한 싸움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을 말한다.<sup>12)</sup> 이런 인식을 보여주는 인물들은 대

8) 『송천필담(1)』, 560~562면.

9) 호협형 무인담에 대해서는 정재민, 『호협형 무인담의 전승변이와 사회문화적 의미』, 『한일 군사문화연구』 제26집, 한일군사문화학회, 2018, 321~351면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10) 김영준 역, 『완역 파수록 진담록』, 보고사, 2010, 116면 및 118면.

11) 『한겨잡록』(정명기 편, 『한국야담자료집성』, 권1, 543면.)

부분 싸움터에서 순절 내지 순국으로 생애를 마감한다. 하지만, 전부 그런 것은 아니다.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처절한 싸움을 벌인 끝에 승리를 거두는 명장으로 기억되는 경우도 있다.<sup>12)</sup>

전란을 일어나면 무인들은 전장으로 나아가게 되며 궁극적으로 목숨을 건 치열한 싸움을 치르게 된다. 이때 출정자들은 격렬한 싸움을 벌이기 직전 또는 죽음이 임박한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소회를 토로한다. 토로의 형식은 독백이나 대화, 가족에게 남기는 유언, 절명의 소회를 담은 한시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 <문기방(文紀房)>

정유년 8월에 왜적이 숙성령(宿星嶺)을 넘자 병사(兵使)는 진영을 순천에서 남원으로 옮겼다. 이때 사졸들은 모두 흩어지고 다만 50여 명의 비장만 남아 있었다. 왜적이 점차 성 아래로 다가오자 문기방은 그의 사촌아우 문명회(文明會)와 함께 눈을 부릅뜨고 손바닥에 침을 뱉으면서 말하기를, “오늘 마땅히 죽기로 결단하여 나라에 보답하리라.” 하고, 북을 치면서 군사를 이끌고 남문으로 들어갔다. 왜적이 성을 두어 겹으로 포위하고 공격했다. 문기방은 활을 어지러이 쏘아서 적을 무수히 죽였는데 오른손 손가락이 모두 떨어져 나갔다. 다시 왼손으로 적을 쏘았는데 그마저 또 떨어졌다. 이때 문기방이 시를 지어 읊기를 “평생 지녀온 순국의 뜻, 허리 아래 옥룡검이 안다네(平生殉國志 腰下玉龍知).”라고 하자, 문명회가 이어서 “힘이 다하여 성 안이 외로운데, 누가 위태로운 사직을 불잡으랴(力盡孤城裏 誰扶社稷危).”라고 읊었다. 두 장수가 옷소매에 혈서를 써놓고 힘껏 싸우다 죽으니, 종이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산기슭에 장사지냈다.<sup>14)</sup>

문기방과 그의 사촌 아우 문명회의 장렬했던 마지막 순간을 소상하게 전해 주는 이야기이다. 남원성 싸움은 애초부터 왜군의 압도적인 우세 속에 치러진 불리한 싸움이었다. 이렇게 불리한 싸움에서 문기방이 맹렬하게 싸우다가 순

12) 감사자로서의 형상은 무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문인들 중에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과 싸우다가 순절한 인물들이 많다. 따라서 감사자의 형상은 전란기에 문무반에게 공통되는 모습이라고 본다.

13) 무장이 순절 내지 순국하는 싸움은 대체로 패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실에서 패배했다고 할지라도, 설화 속에서는 정신적으로 승리한 싸움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순절과 순국은 승패를 초월한 또 다른 경지의 회두라고 할 만하다.

14) 이월영·주귀선 역, 『청구야담』, 한국문화사, 1995, 268~270면.

절하게 된 것은 그의 의식과 관련이 깊다. 싸움이 시작되기 직전에 그는 죽음으로 나라에 보답할 것을 맹세한다. 또한 전세가 기울어져 죽음의 순간이 임박해 오자 평생 순국의 의지를 지녀왔음을 고백하는 시를 지어 부른다. 이를 보면 문기방의 말과 행동의 이면에는 감사자로서의 인식이 크게 작용했다고 본다.

이러한 부류에 속하는 형상은 전란기에 순국한 무신들의 이야기 속에서 두루 확인할 수 있다. <신립(申瑴)>은 탄금대에서 “남아가 죽을지언정 구차히 살 수는 없다.”고 하면서 적진에 뛰어들어 싸우다가 강물에 몸을 던진다.<sup>15)</sup> <윤경원(尹慶元)>은 출정에 앞서 “만일 성공하면 하늘이요 오직 한번 죽음이 있을 뿐이다.” 하며 사슴가죽으로 넓적다리를 싸맨 채 싸움터로 향했다고 한다. 게다가 그의 아버지 윤탁연(尹卓然)은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다만 한번 죽음이 있을 뿐이요 절대로 구차히 살지 마라!”고 당부하기도 했다.<sup>16)</sup> <김응해(金應海)>는 청나라 군사들이 정방산성을 에워싸자 “심하 싸움에서 버드나 무 밑에서 눈을 부릅뜨고 활과 화살을 가지가 있던 자가 곧 내 형님이다. 이제 내가 힘이 다하여 능히 너를 섬멸하지 못하니 무슨 면목으로 살아서 우리 임금께 보답하며 죽어서 형님을 본단 말이나?” 하면서 적진으로 돌진했다고 한다.<sup>17)</sup>

이와 같이 <신립>과 <윤경원>, <김응해>를 보면 그들이 유사한 모습으로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음을 알 수 있다. 후퇴하거나 도망쳐서 죽음을 피할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들이 보여준 인식은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다가 죽는 감사자의 형상을 담고 있다. 구차하게 생명을 구하지 않겠다는 마음, 오직 한번의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자세, 부끄러운 존재가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바로 싸움터에 나선 무관들이 지녔던 감사자의 형상이다.<sup>18)</sup>

15)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국역 국조인물고』 권12, 문양사, 2002, 237면.(이하 서명과 면수만 제시)

16) 유몽인, 신익철 외 역, 『어우야담』, 돌베개, 2006, 54~55면; 『국역 국조인물고』 권17, 233면.

17) 홍양호, 해친서당 편역, 『해동명장전』, 박이정, 2014, 576면.(이하 서명과 면수만 제시)

18) 이런 부류에 속하는 인물은 순절한 인물에 이야기에서 흔히 찾을 수 있다.(정계민, 『조선시대 국난기 순절무인담 연구』, 『한국군사학논집』 제70집 3호,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2014, 1~25면 참조)

#### 4. 명관(明官)으로서의 형상

명관으로서의 형상은 말 그대로 무인이 스스로를 ‘밝은 관리’로 인식되는 형상이다. 즉, 이러한 무관의 면모는 애민정신을 바탕으로 선정을 베푸는 수령, 공정하게 일처리를 하는 관료, 법도를 지킬 줄 아는 벼슬아치로 그려진다.

##### <최윤덕(崔潤德)>

어느 날 한 촌부(村婦)가 울면서 고하기를, “어젯밤에 범이 와서 저의 남편을 죽였습니다.” 했다. 이에 최윤덕이 말하기를, “내 너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주리라.” 하고 범을 쫓아가서 손수 쏘아잡고 그 배를 갈라 그 뼈와 살과 수족을 꺼내서 옷에 싸가지고 관을 준비하여 묻어주니 그 촌부가 감격하여 울기를 마지않았다.<sup>19)</sup>

최윤덕은 남편의 원수를 갚아주기 위해 호랑이를 처치하는 용맹한 무인 판장이자, 또한 관을 준비하여 장례까지 치러주는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목민관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최윤덕의 이러한 언행의 저변에는 선정을 베푸는 밝은 관리가 되어야겠다는 명관으로서의 인식이 깔려 있다고 본다.

##### <정택경(鄭宅慶)>

정택경은 강진(康津) 출신의 무관으로 언양현감(彦陽縣監)이 되었다. 그 고을의 재결(災結)을 보고하였는데 ‘스스로 삭감하라’는 퇴짜를 받게 되었다. 정택경이 다시 처음의 보고서를 올렸더니, 감사가 판결하기를, “비록 옥당(玉堂) 출신으로 보임된 자일지라도 감히 이처럼 하지는 못할 것이다. 더구나 무과 출신의 현감이 감히 이럴 수 있는가?”라고 하였다. 정택경은 분노하여 이렇게 항의하였다. “문신과 무신은 비록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 해도 이 백성과 저 백성은 다 같이 농사짓는 백성이다. 소중한 것은 백성이거늘 어찌 수령의 귀천을 논하리오.” 그 연사가 엄준함에 감사는 사과하고 보고한 재결 액수대로 마감하여 내려 보냈다. 연말이 되자 감사는 고과에 “강직하고 흔들리지 않아 처음과 끝맺음이 한결 같다”라고 썼다.<sup>20)</sup>

재결이란 재해를 입은 전답의 세금을 줄여주거나 혹은 재해에 대비하여

19) 『해동명장전』, 329면.

20) 정약용, 다산연구회 역, 『역주 목민심서』, 권2, 전면개정판, 창비, 2018, 312면.

면제기준을 책정하는 것을 말한다. 감사는 재결을 줄이라고 요구하고 정책경은 최초 산정된 결과를 고집한다. 여기에는 무반 출신의 수령과 문반 출신 상관 사이의 갈등이 겹쳐 있다. 정책경이 스스로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보고하자, 감사는 무반 출신이 이럴 수 있느냐고 하면서 심히 책망한다. 그러자 정책경은 문신이나 무신이나 똑같은 관리이며, 백성이 가장 소중할 뿐 벼슬의 귀천이 있을 수 없다고 항변한다. 두 사람의 대립은 감사가 사과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이를 보면 정책경은 명관의 형상을 갖춘 무관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이렇듯 명관의 형상을 보여주는 인물은 제법 많다. <장필무(張弼武)>는 양산군수 시절에 인접한 병사와 수사의 요구를 거절한다. 그러자 병사와 수사가 무엇을 믿고 거절하느냐고 불만을 터트리자, 장필무는 “내가 믿는 것은 다만 초옥삼간(草屋三間)뿐이다.”라고 하면서 버틴다.<sup>21)</sup> <정충신(鄭忠信) ①>은 말의 병을 돌봐달라는 재상의 부탁에 “제가 비록 피로하여 둔하나 직위는 무인재상인데, 어찌 말 고치는 의원 노릇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거절한다.<sup>22)</sup> 이처럼 장필무는 공정하게 일처리를 하는 무관을 모습을, 정충신은 당당한 자긍심을 갖춘 무관의 모습을 보여준다. <장봉익(張鵬翼)> 역시 “말하는 것에 따라 문서를 작성하는데 빠르기가 비바람 치는 듯”한 문장 실력과 함께, “소인이 무업을 하지 않는다면 저 상장군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자존감을 지닌 무관의 면모가 드러난다.<sup>23)</sup> 이들의 언행 이면에는 무관도 훌륭한 관리가 될 수 있다는 명관으로서의 의식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이희건>과 <정충신②>은 세속적 명리보다 변방 수비의 책임을 다하는 변장(邊將)의 면모를 보여주기도 한다.

#### <이희건(李希建)>

이희건은 홍주 사람이니 상신(相臣) 이서(李舒)의 팔세손이다. 대대로 연안(延安)에 살더니 무관에 급제하여 감자에 용천부사(龍川府使)로서 원수 장만(張晩)을 따라서 안현에서 적을 치고, 적이 평정되자 즉일로 회군하였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21) 『국역 국조인물고』 권25, 253면.

22) 김동욱 역, 『새벽강가에 해오라기 우는 소리(국역 기문총화(상))』, 아세아문화사, 2008, 495~496면; 이희준, 유희수·이은숙 역, 『계서야담』, 국학자료원, 2003, 440~442면.

23) 심재, 신익철 외 역, 『교감역주 송천필담(1)』, 보고서, 2009, 500~501면.

“논상을 기다리지 않고 급히 돌아가는가?” 하자 희건이 말하기를, “나는 땅을 지키는 신하로서 부득이 임소를 떠난 것인데 어찌 더디게 돌아와서 이곳을 돌아다볼 수 있으랴.” 하고 드디어 군사를 이끌고 갔는데 진무훈(振武勳)으로 기록되고 홍양군(洪陽君)에 봉해졌다.<sup>24)</sup>

#### <정충신②>

임금님의 수레가 서울로 돌아오니 여러 장수들은 모두 노량진(驚梁津) 나무에서 임금님을 맞이하였으나, 금남은 곧장 안주 임소로 돌아갔다. 임금께서 글을 내려 금남을 부르자 그제야 올라왔다. 임금께서 “어찌하여 너는 혼자만 먼저 임소로 돌아갔는가?”라고 묻자, 금남은 대답하기를 “저는 벼슬아치가 되었으면서도 능히 그 땅을 지키지 못한지라 적들이 방종하게 서울로 들어와 임금님께서 몽진(蒙塵)까지 하셨으니 이는 신하인 저의 죄이고, 병사를 일으켜 적을 토벌하는 것은 신하인 저의 직분입니다. 제가 지은 죄를 진실로 용서받기가 어려운데, 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임금님의 신령함에 힘입어 적이 이미 섬멸되었으니, 마땅히 자기 직무로 돌아와 죄를 기다릴 뿐이지 어찌 감히 당돌하게 어가를 맞이하며 공과 상을 바라겠습니까?” 했다. 금남의 말을 들은 임금께서 그를 더욱 중히 여겼다.<sup>25)</sup>

이와 같이 <최윤덕>, <장필무>, <장봉익>, <정충신①·②>, <이희건>에는 명관으로서의 무관의 형상이 잘 나타나 있다. 그 속에는 근면함과 애민정신, 공평무사한 일처리, 무인관료의 자긍심, 변방의 수비를 우선시하는 무인 관료의 모습이 담겨 있다. 이런 면모와 언행이야말로 고을 잘 다스리고 신하된 도리를 다하려는 ‘밝은 관리’로서의 모습이라고 본다.

### 5. 선비로서의 형상

선비란 일반적으로 높은 학식을 갖추고 있으나 벼슬길에 나가지 않은 사람을 이른다. 이외에도 학문을 닦는 사람, 법도와 예절이 바르고 의리와 명분을 중시하며 세속적 이익을 탐내지 않고 고결한 인품을 지닌 사람을 범칭하는 말이기도 하다. 이러한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을 선비나 학사(學士), 대유(大儒), 군자와 같은 용어로 지칭한다.

24) 『국역 국조인물고』, 권24, 283면; 『대동기문(하)』, 55면.

25) 이월영·자귀선 역, 『청구야담』, 한국문화사, 1995, 311~313면.

무인설화 중에는 이러한 선비적 가치를 지향하는 말과 행실을 보여주는 인물들이 존재한다. <박영>은 이러한 부류에 속하는 대표적인 이야기이다.

<박영(朴英)>

(박영이)辛亥(辛亥)에 무과에 급제하여 금중(禁中)에 입직하다가 탄식하기를, “말을 달리고 칼을 쓰는 것은 한 용부(勇夫)의 일이니, 사람으로서 배우지 않으면 어찌 군자가 될 수 있으랴?” 하고 드디어 뜻을 결정하고 돌아와 신당(新堂) 정봉(鄭鵬)에게 학문을 배우는데 마음을 가라앉히고 몸으로 익혀서 문을 닫고 나가지 않은 지 수 년이 되었다.<sup>26)</sup>

박영은 무과에 급제하여 스무 살에 건주위(建州衛) 정벌에도 출정했던 조선 중기의 무인이다. 하지만 그는 스물네 살 되던 해에 스스로 관직에서 물러나 낙향하여 학문에만 힘썼다. <박영> 이야기는 그가 왜 갑자기 그런 길을 택했는지에 대해 그 내막을 전해주는 설화다.

박영은 어릴 때부터 무예가 뛰어났다. 담장 너머에 있는 물건을 화살로 쏘아도 백발백중이었다. 그래서 부친은 아들의 이름을 ‘영’이라고 짓는다. 그런데 박영은 순조롭게 나아가던 무관의 길을 돌연 등지고 학문의 길을 택한다. 이에 대해 박영 자신은 ‘용부(勇夫)’의 일을 버리고 ‘군자(君子)’의 길을 취한 것이라고 스스로 평가한다. ‘사람’이 되려면 배워야 한다는 자기성찰의 결과이자 선비로서의 형상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송당과 유사한 생애를 살았던 인물로는 <이항(李恒)>과 <유형(柳珩)>을 들 수 있다. 이항(1499~1576)은 호일한 성격에 용력이 뛰어난 인물이었다. 일찍이 무과에 합격하였으나 한량의 무리들과 어울려 거친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삶은 서른 살에 완전히 뒤바뀐다. 백부의 경계하는 말씀을 받아들여 학문의 길로 들어선 이후, 오로지 도를 구하는 데 뜻을 두어 마침내 대유(大儒)를 이루었다고 한다.<sup>27)</sup> 이런 변화의 이면에는 선비로서의 인식이 크게 작용했다고 본다. 선비의 형상은 자신의 삶에 대한 ‘뉘우침’과 또 다른 삶에 대한 ‘깨달음’을 제공했으며, 그 결과로서 이항은 소위 ‘큰 선비[大儒]

26) 박동량, 『기재잡기』(민족문화추진회, 『국역 대동야승』 권13, 중판, 민문고, 1989, 99~101면); 『국역 국조인물고』, 권9, 73면.

27) 『국역 국조인물고』, 권24, 30면.

가 될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이항의 삶은 박영의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그에 비한다면 유형의 생애는 훨씬 더 다단하다. 유형은 어려서 무예만 일삼았다고 한다. 그러다가 성년이 되어서는 모친의 권고에 따라 생산과 경술에 힘쓴다. 그 결과 그는 가난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신실한 독행(篤行)의 선비’로 탈바꿈한다.<sup>28)</sup> 그러나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김천일의 휘하에 들어가 의병활동을 펼쳤으며, 1594년에 무과에 장원급제한다. 그 이후에는 경상우수사, 삼도수군통제사, 병마절도사를 거치는 등 전형적인 무관의 삶을 살아가다가, 황해도병마사로 재임하던 중에 갑자기 운명했다.

이를 보면 유형은 선비로서의 삶을 지향하다가 예기치 못한 전란으로 인해 무인관료의 길을 걸었던 것으로 보인다. 임란 전에는 모친의 말에 순종하여 호기를 버리고 선비의 길을 걷는다. 이때에는 선비로서의 인식이 크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임란 발생 이후에는 “장부가 마땅히 재주로 몸을 나타낼 것이니 어찌 장구(章句)에 구속되겠는가?”라고 하면서 선비의 삶에서 벗어나 무장의 길을 택한다. 물론 이 무렵부터는 감사자와 명관의 형상이 발현되었다고 본다. 그러므로 유형의 삶은 선비의 삶에서 무장의 삶으로 나아가간 특이한 경우라 할 것이다.

### III. 무관의 형상과 그 사회문화적 의미

하나의 계층이나 집단에 대한 전승자의 인식은 다중성을 띠게 마련이다. 계층과 집단이 지닌 다양한 위상과 성격과 역할이 중층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무관의 형상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다. 한 사람의 무관에게도 자신이 속한 시대와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위상이 주어지고 그에 걸맞은 성격과 역할이 요구된다. 개인적으로는 가문의 구성원으로서, 신분적으로는 지배층의 일원으로서, 정치적으로는 관료집단에 속한 벼슬아치로서, 전란이 일어났을 때는 싸움을 진두지휘하는 참전 장수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했다. 이와 같이 무관들은 시대적, 상황적, 신분적, 정치적 여건에

28) 『해동명장전』, 614면; 『국역 국조인물고』 권16, 69면.

상응하는 역할을 담당해왔으며, 그 과정 속에서 장부, 의협, 감사자, 명관, 선비와 같은 다양한 면모의 형상이 정립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이들 다섯 가지 형상은 상호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먼저, 장부로서의 형상은 무인이 태생적으로 타고나는 기질을 드러내주는 면모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질은 무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보편적 기상이나 성향에 해당한다. 따라서 장부의 형상은 무관에 대한 전승자의 인식 중에서 가장 저변에 놓여있는 밑그림에 해당한다고 본다.

다음, 의협, 명관, 감사자, 선비의 형상은 상호간에 같고 다른 측면을 공유한다. 일단 이들 네 가지 형상은 성장기보다는 성년 이후에 주로 발현된다. 이는 성장기에 주로 표현되는 장부의 면모와는 구분되는 지점이다. 그렇지만 평시와 전시라는 기준에서 볼 때 이들 네 가지 형상은 그 차이점이 분명하다. 명관과 선비로서의 모습은 주로 평시를 배경으로 한다면, 감사자의 모습은 전란기를 배경으로 한다. 그에 비해 의협으로서의 면모는 약자가 처한 개인 차원의 혼란을 배경으로 한다. 그러므로 명관과 선비, 감사자, 의협의 형상은 각각 평시, 국가적 혼란기, 개인적 혼란기를 배경으로 하여 주로 발현된다는 특징이 있다.

나아가 명관, 의협, 감사자의 형상은 현실세계의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인식으로서 작동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면, 선비의 형상은 이러한 현실세계와 일정한 거리를 둔 이념세계를 지향하는 인식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따라서 명관, 의협, 감사자의 형상이 현실적 성취를 지향하고 있다면, 선비의 형상은 현실을 초월한 이념적 성취를 지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무인설화를 통해 확인되는 다섯 가지 형상과 그들 사이의 관계양상은 조선이 표방한 문치주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문치주의는 예(禮)와 악(樂)에 기초하여 백성들을 교화시키고 제왕의 덕에 귀복(歸服)시킨다는 이상주의적 치세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리학에 입각한 조선의 문치주의는 일상 속에서 문무반 사이의 차별을 강화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목민심서』에는 문무반 사이의 차별이 얼마나 심각한 사회적 문제였는지 잘 보여주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1) 『경국대전』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우후(虞候)가 여러 고을을 순행할 때에 우후는 동쪽에 앉고 당상관 수령은 서쪽에 앉고, 당하관 수령은 남쪽에 앉는다. 당상관 수령이 없으면, 우후가 북쪽에 앉고 당하관 수령은 서쪽에 앉는다. 도사(都事)와 평사(評事)도 마찬가지이다.” 요즘 풍속에 우후에 대해서는 같은 등급으로 대하고 도사와 평사에 대해서는 사신처럼 대하는데, 우후는 무인인 까닭에 대우가 원래의 규정에 미치지 못하고, 도사와 평사는 문신인 까닭에 대우가 원래 규정보다 더하고 있다. 모두 잘못된 습속(弊俗)이다.<sup>29)</sup>

(2) 우리나라 습속에 무인을 천시하는데 무과에 합격하고도 벼슬하지 못하는 자를 더욱 천히 여긴다. 가문의 선대에 흠이 하나만 있어도 그 자손은 삼사(三司)에 통하지 못하니, 이 때문에 자손에 경계하여 무예를 익히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무과에 응시하는 자가 끊어지는 원인은 합격하고도 속절없이 늙어가는 데에 있다. …… 만과(萬科)란 무엇인가? 나라에 큰 경사가 있으면 과거시험을 보여 기쁨을 표현한다. 겨우 화살 한 대를 맞힌 자도 다 합격시켜서 합격자가 천 명이 넘기도 하고 수천 명에 이른다. 이것이 이른바 만과이다. 만과라는 명칭부터 천하여 백성들이 합격자로 대접하지 않으며, 이런 이유로 병조에서도 들어 쓰지 않는다.<sup>30)</sup>

(1)에서는 문무관에 대한 대우가 『경국대전』의 규정과 다르게 적용되는 현실을 지적한다. 단지 문관과 무관이라는 차이 때문에, 하급 지방관을 상급 지방관보다 더 높이 대우하는 현실에 대해 다산은 ‘잘못된 습속’이라고 평가한다. (2)에서는 무사를 천히 여기는 연유를 설명한다. 본래 나라 풍속이 무인을 천시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하여 무과의 이름조차 천하다는 것이다. 합격인원이 너무 많고 합격수준이 너무 낮아서 과거로서의 가치가 땅에 떨어졌다는 말이다. 그래서 무과 합격자는 합격자로 대접하지도 않고, 관직조차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무과 합격자는 속절없이 늙어간다고 진단한다. 이처럼 조선사회는 문인을 높이고 무인을 낮추는 숭문천무의 문치주의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조선시대의 문반은 무반보다 월등하게 높은 사회적 지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

이런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분위기는 무인들로 하여금 다섯 가지의 형상을 형성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때로는 문인적 성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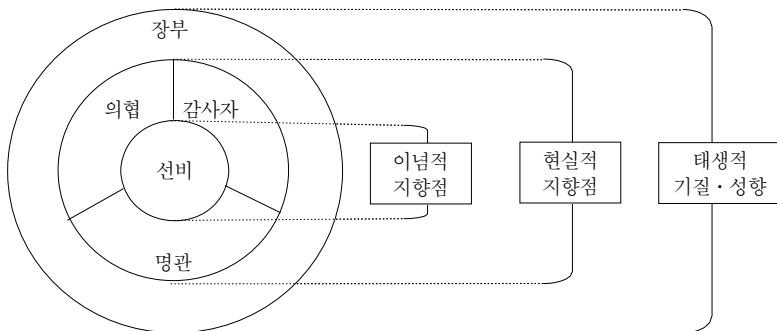
29) 정약용, 다산연구회 역, 『역주 목민심서』 권1, 전면개정판, 창비, 2018, 339면.

30) 위의 책, 권4, 240~241면.

뒤쫓아 명관, 선비의 형상을 강화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반대로 무인적 성향을 지향하여 장부, 의협, 감사자의 형상을 부각하기도 했다. 따라서 명관·선비의 형상이 문치주의의 보편성을 추구했다면, 장부·의협·감사자로서의 형상은 무인 고유의 특수성을 지향하고 있다고 하겠다. 결국 이들 다섯 가지 형상들은 문치주의를 향한 구심성(球心性)과 함께, 문치주의에서 이탈하려는 원심성(遠心性)을 보여주는 중층적 양태를 가지고 있다.

한편, 개인과 사회의 관계 측면에서 보면 장부·선비의 형상은 개인적 성향이 강한 반면에 의협·감사자·명관의 형상은 사회적 성향이 강하다. 의협은 위험에 처한 약자와의 관계를 중시하고, 감사자는 적과의 관계가 문제되며, 명관은 백성이나 상하관리들과의 관계가 가장 중심에 놓여 있다. 이런 점에서 장부·선비의 형상이 사적 성격이 강하다면 의협·감사자·명관의 형상은 공적 영역에 가까운 모습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다섯 가지 형상이 지니고 있는 특성으로 보아 전승자들은 의협, 감사자, 명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춘 무관을 바람직한 존재로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 세 가지 형상은 주로 성년 이후 시기를 배경으로 하여 시대적, 현실적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발현되었던 형상이다. 이런 점에서 이들 세 형상은 문치주의 시대를 살았던 무인들의 현실적 지향점에 해당한다고 평가된다. 그에 비한다면, 선비의 형상은 현실세계를 넘어서서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이념적 지향점이었다고 할 만하다. 이러한 양상을 하나의 그림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렇듯 설화 전승자들은 조선시대 무관들의 현실적 지향점으로서 의협, 감사자, 명관의 모습을 지향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무관들의 다섯 가지 형상은 문무차별의 현실을 살아가면서 궁극적으로 무관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한다. 그것은 무관의 존재적 가치를 인정하고 그들의 사회적 위상과 역할을 확고하게 하는 일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조선시대 무관들이 보여준 형상은 현실세계 속의 차별을 넘어서고자 했던 무관들의 모습을 반영한 것이며, 그 결과 무관들이 명실상부한 사회적 존재로 인식되었음을 말해준다.

나아가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무인들의 이야기와 견주어 보아도 조선시대 무관의 형상은 뚜렷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장부·감사자의 형상은 조선시대 이전에도 쉽사리 찾아볼 수 있다.<sup>31)</sup> 그러나 이 두 가지를 제외한 의협·명관·선비의 형상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비로소 나타난 면모다. 이것만 보더라도 조선시대 무관들이 보여준 형상은 그들이 문존무비의 풍조 속에서 사회문화적 위상을 정립해 왔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다만, 문무반의 위상이 대등하지 않았던 문치주의 체제 속에서 균형 잡힌 위상을 정립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한계는 분명하다. 그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 무관의 형상은 이전시대에 비해 진일보했다고 하겠으며, 이를 통해 그들은 사회적 존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한편, 조선시대 무관들이 보여준 형상은 무인과 문인 혹은 무인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대립과 갈등을 해석하는 척도로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 <장봉익-유척기>

조정에서 감사 이집의 제사를 지내 주었을 때, 훈련대장 장봉익도 참석하여 대청에서 비스듬히 누워 담배를 피웠다. 당시 대간으로 있었던 유척기가 늦게 도착하여 공적인 모임에 무장이 무례하다고 꾸짖었다. 이 말을 들은 장봉익이 눈살을 찌푸려 망건이 찢어졌다. 그는 즉시 담뱃대를 집어던진 후 자리를 떠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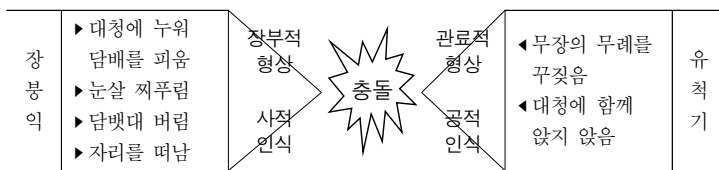
31) 정재민, 『신라 무인담의 전승양상과 의미』, 『국문학연구』 제25집, 국문학회, 2012, 183~198면; 정재민, 『영웅형 무장의 원형 김유신』, 『동방문학비교연구』 제1집, 한국동방문학비교연구회, 2013, 183~198면.

다. 훗날 장봉익이 유척기를 만났는데 도리어 그의 엄정한 법도를 치하하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냈다.<sup>32)</sup>

이집(1670~1727)은 황해도관찰사로 부임하여 피폐한 민생을 구제하는 데 힘쓰다가 갑자기 죽었다. 그래서 조정에서 그의 장례를 치러주게 했다고 한다. 이 무렵 장봉익(1674~1735)은 훈련대장으로 54살이었으며, 유척기(1691~1767)는 대사간으로 37살이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엄숙해야 할 장소에서 날카롭게 대립한다. 유척기는 하찮은 무장의 태도가 무례하다고 꾸짖고, 장봉익은 담뱃대를 집어던지며 자리를 떴다. 하지만 훗날 다시 만난 두 사람은 상대방의 행실을 서로 흔쾌히 치하했다는 것이다.

<장봉익-유척기> 이야기 속에는 여러 가지 의문이 잠재해 있다. 그 당시 문무반 사이의 차별이 일상화되어 있었다고 해도, 17살이나 더 많은 장봉익을 굳이 면전에서 꾸짖을 필요가 있었을까. 장봉익은 또한 담뱃대를 집어던지고 떠날 정도로 화를 낼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데 더욱 황당한 대목은 두 사람이 훗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잘 어울렸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설화 말미에서 장봉익의 성격이 그토록 호쾌했으며 유척기 또한 그에 못지않게 올곧았다고 높이 논평한다.

그렇지만 이는 두 사람 인품의 높고 낮음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본다. 두 사람의 충돌과 화해를 무관의 형상 측면에서 들여다보면 좀 더 깊은 이해가 가능하다. 즉, 두 사람의 대립은 장부의 형상과 명관의 형상 사이의 충돌이자 사적 인식과 공적 인식의 충돌이다.



32) 김동욱 역, 『새벽강가에 해오라기 우는 소리(국역 기문총화(중))』, 아세아문화사, 2008, 260~261면.

장봉익이 보여준 언행은 문무반을 차별하는 그 당시 사회적, 문화적 관습에 대한 거부이자 저항을 뜻한다. 개인적으로 장봉익은 현달한 무신이지만 나이가 많은 관료로서 충분히 그런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장봉익의 언행은 당대의 법도를 어긴 일탈에 불과하다. 따라서 유척기의 언행은 장봉익의 거부에 대한 거부이다. 결국 <장봉익-유척기>의 대립은 장부와 명관이라는 인식 사이에서 벌어진 충돌이라고 해석된다. 그것은 사적 인식과 공적 인식의 대립이기도 하다. 물론 이야기의 결말은 명관의 형상과 공적 인식의 승리로 귀결된다. 훗날 장봉익이 유척기와 어울렸다는 것은 결국 그가 명관으로서의 형상과 공적 인식의 우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무반 사이에 벌어지는 대립과 갈등은 <정충신-문인재상>, <장언량-임형수>, <이창운-김재찬>, <정택경-문인감사>, <이완-정태화> 등의 이야기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 <정충신-문인재상>

한 재상이 정충신에게 자기 말을 치료해달라고 했다. 정충신이 마의(馬醫)를 불러 치료하게 하자, 재상이 왜 손수 살펴주지 않느냐고 꾸짖었다. 정충신이 냉소를 띠며 자기는 무인재상이지 마의가 아니라고 답했다.<sup>33)</sup>

#### <장언량-임형수>

중종 때 명나라가 건주위(建州衛)를 토벌할 때 이기(李芑)가 도원수, 장언량이 부원수, 임형수가 종사관에 임명되어 출정하게 되었다. 그런데 임형수가 무관 밑에서 일하게 된 것에 불만을 품었다. 그러자 장언량이 융복을 입고 장수의 풍도를 보여 그의 불만을 가라앉혔다. 얼마 뒤에 출정이 중지된 후 임형수가 장언량을 찾아가 함께 즐기고 헤어졌다.<sup>34)</sup>

#### <이창운-김재찬>

이창운은 어영총사에 제수되자 문과에 갓 급제한 김재찬을 종사관으로 삼았다. 그런데 김재찬은 교만한 마음을 품고 여러 번 불려도 오지 않았다. 이창운이

33) 이희준, 유화수·이은숙 역, 『계서야담』, 국학자료원, 2003, 440~442면; 김동욱 역, 『새벽강가에 해오라기 우는 소리(국역 기문총화(상))』, 아세아문화사, 2008, 495~496면.

34) 이수광, 남만성 역, 『지봉유설(상)』, 을유문화사, 1994, 154~155면.

군령으로 처형하려 했으나 그 부친의 편지를 받고 용서해 주었다. 그날부터 김재찬을 영창 안에 가두어 놓고 3년 동안 평안도에 대한 정보를 익히게 했다. 몇 년 뒤 김재찬이 정승이 되었을 때 홍경래가 반란을 일으켰다. 김재찬은 이창운에게 배운 정보를 이용하여 난을 진압하고, 그의 공로를 높이 기렸다.<sup>35)</sup>

#### <정택경-문인감사>

정택경은 강진 출신의 무관이다. 언양현감으로 있을 때 재결(災結)을 보고했더니 감사가 ‘스스로 삭감하라’며 퇴짜를 받았다. 그러나 정택경은 삭감하지 않고 처음 보고서 그대로 다시 올렸다. 그러자 감사가 감히 무면 출신이 이럴 수 있는가 하면서 크게 책망했다. 이에 분노한 정택경이 문신과 무신 간의 차이가 있으나 똑같은 관리이며 벼슬의 귀천이 없다고 하면서 엄준하게 항의했다. 결국 감사가 정택경에게 도리어 사과했다.<sup>36)</sup>

<정충신-문인재상>은 <정봉익-유척기>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설정되어 있다. 정충신의 언행은 철저하게 명관적 형상과 공적 인식에 입각해 있다. 반면에 문인재상은 사적 인식에 사로잡혀 명관으로서의 형상은 미약한 상태이다. 이 때문에 그의 언행은 공사 구분이 불분명하다. 마의에게 부탁하면 될 일을 굳이 포도대장에게 부탁할 필요가 없다. 정충신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서 냉소를 보냈을 것이다.

<장언량-임형수>는 하급문관이 그의 상급자인 무관을 회피하려다 좌절했다는 이야기이다. 물론 임형수의 핑계가 온전한 거짓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이야기의 중점은 장언량이 장수의 풍도를 내세워 그의 핑계를 무마시켰다는 점이다. 장언량이 일부러 용복을 갖추어 입었다는 것은 그가 감사자이자 공적 인식에 입각해 있음을 뜻한다. 그와 달리 임형수는 사적 영역에 머물러 있다. 용복을 입은 장언량과의 대면상황에서 임형수는 자신이 사적 인식에 매몰되어 있음을 깨닫고, 곧바로 명관의 형상을 견지한 임형수의 뜻을 받아들인다.

한편 <이창운-김재찬>은 <장언량-임형수>와 비슷한 구도의 이야기이지만, 문무반 사이의 대립과 충돌은 훨씬 더 심각하게 그려진다. 김재찬은 교만한

35) 『대동기문(하)』, 257~260면.

36) 정약용, *다산연구회 역, 『역주 목민심서』*, 권2, 전면개정판, 창비, 2018, 312면.

마음으로 자신의 상급자인 무관의 명령을 거부하다가 자칫 처형될 위기에 처한다. 그는 아무리 직책이 높다고 하더라도 무인은 무시해도 무방하다는 천부 의식이 강한 인물이다. 왜곡되고 편협한 숭문주의자(崇文主義者)의 모습이다. 그러나 이창운은 김재찬의 죄를 용서해주는 대신, 그를 영창에 가두어 놓고 3년 동안 가르쳐 성숙한 관료로 탈바꿈시킨다. 이를 보면 이창운은 시종일관 명관으로서의 형상을 지니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에 비해 김재찬은 편향된 사적 인식에 매몰되어 있다가, 이창운의 가르침에 힘입어 비로소 균형 잡힌 공적 인물로 재탄생했다고 할 만하다.

<정책경-문인감사>는 상관 감사와 하관 현감 사이의 갈등을 보여준다. 정책경이 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자, 감사는 ‘감히 무변 현감이 이럴 수 있느냐?’고 질책한다. 그러자 정책경은 문무반의 차이가 크다는 현실은 인정하지만, 이 때문에 백성을 위한 수령의 일을 저버릴 수 없다고 항변한다. 수령이 문반 출신인지 무반 출신인지에 따라 그 귀천을 따지는 풍조에 대한 따끔한 지적이다. 이에 감사는 현감에게 사과한다. 이러한 정책경과 감사의 대결은 결국 공적-사적 인식 간의 대결이다. 정책경은 시종일관 명관의 형상을 입각해 있는 반면에, 감사는 초반에는 사적 인식에 치우쳐 있다가 후반에는 공적 인식을 구비한 관료로 전변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 IV. 나오는 말

조선은 성리학을 지배이념으로 삼아 문치주의 또는 숭문주의 정책을 추진했던 사회였다. 이러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체제 속에서 무인들은 양반층의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문인들과 차별되는 삶을 강요받아 왔다. 그렇다면 조선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이러한 차별적 사회문화 속에서 무관을 어떤 모습을 지닌 존재로 인식했을까. 문헌설화를 통해 살펴본 결과 전승자들은 무관들을 장부, 의협, 감사자, 명관, 선비의 형상으로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장부로서의 형상은 무관을 남아, 대장부, 장사 등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주로 무인의 성장기에 나타난다. 이는 무인의 태생적 기질이나 성향과 관련이 깊기 때문으로 보인다. 출사 이후에는 의협, 감사자, 명관 및 선비로서

의 형상이 나타난다. 이들 중에서 의협과 감사자, 명관의 형상은 주로 시대적 상황 변화에 의해 선택적으로 부각되는 공적 면모에 해당한다. 의협의 형상은 약자가 곤경에 처한 상황을 대면했을 때, 감사자의 형상은 국가적 전란이 발생했을 때, 명관의 형상은 관리로서 임무를 수행할 때 주로 드러나는 데, 이들은 현실세계 속에서의 지향점에 해당한다. 그에 비해 선비로서의 형상은 무관을 선비나 대유, 학자, 군자로 그리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이념적 지향점이자, 나아가 문무반 모두에게 공통되는 보편적이고 이상적인 형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들 다섯 가지 무관의 형상은 문치주의 시대를 살았던 조선시대 무인들의 태생적, 현실적, 이념적 형상을 잘 보여준다. 나아가 무관들이 현실적 지향적으로서 의협, 감사자, 명관의 형상을 지니고자 했다는 점은 곧 문무반 사이의 차별을 극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무관의 사회적 위상을 정립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한다. 이와 더불어 의협·명관·선비의 형상은 조선시대에 들어와 비로소 나타난 새로운 무관의 면모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조선시대 무관들은 형상의 확장을 통해서 사회적, 문화적 존재로 자리 잡게 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들 다섯 가지의 형상은 문인과 무인 사이에 발생하는 충돌과 대립, 화해와 조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 좋은 척도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장봉익과 유척기 간에 일어난 충돌이나, 이창운과 김재찬 사이에 발생하는 심각한 대립은, 표면적으로는 문무 차별에 대한 저항과 좌절이라 평가할 수도 있지만, 이면적으로는 장부의 형상과 명관의 형상 사이에 벌어지는 대립과 조화라고 해석된다. 그것은 사적-공적 인식의 대결이며, 이들의 대결은 궁극적으로는 명관의 형상과 공적 인식이 승리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는 무인들도 공적 존재로서 전시에는 감사자의 면모를, 평시에는 명관의 면모를 우선시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 참고문헌

### 1. 자료

- 강효석, 이민수 역, 『대동기문』, 명문당, 2000.
- 김동욱 역, 『새벽강가에 해오라기 우는 소리(국역 기문총화)』, 아세아문화사, 2008.
- 김영준 역, 『완역 파수록 진담록』, 보고사, 2010.
- 박동량, 『기재잡기』 (민족문화추진회, 『국역 대동야승』, 권13, 중판, 민문고, 1989).
- 성 현, 『용재총화』 (민족문화추진회, 『국역 대동야승』, 권1, 중판, 민문고, 1989).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국역 국조인물고』, 권9·12·16·17·24·25, 문양사, 2002.
- 심 재, 신익철 외역, 『교감역주 송천필담』, 보고사, 2009.
- 유몽인, 신익철 외역, 『어우야담』, 돌베개, 2006.
- 이수광, 남판성 역, 『지봉유설』, 을유문화사, 1994.
- 이월영·자귀선 역, 『청구야담』, 한국문화사, 1995.
- 이희준, 유화수·이은숙 역, 『계서야담』, 국학자료원, 2003.
- 정약용, 다산연구회 역, 『역주 목민심서』, 전면개정판, 창비, 2018.
- 『한거잡록』(정명기 편, 『한국야담자료집성』, 제1권, 고문헌연구회, 1987).
- 홍양호, 해천서당 편역, 『해동명장전』, 박이정, 2014.

### 2. 단행본

- 유진 Y. 박, 유현재 역, 『조선무인의 역사 1600~1894년』, 푸른역사, 2018.
- 이성무, 『조선초기 양반연구』(중판), 일조각, 1981.

### 3. 논문

- 김 준, 『조선조 무관 시조의 특징 연구』, 『한국군사학논집』 제72집 2권,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2016, 57~73면.
- 박용운, 『고려전기 문반과 무반의 신분 문제』, 『한국사연구』 제21·22합집, 한국사연구회, 1978, 33~66면.
- 유진 Y. 박, 『무과의 세계』, 『한국사시민강좌』 제46집, 일조각, 2010, 137~153면.
- 이성무, 『조선 교육제도의 정돈과 과거제의 새 모습』, 『한국사시민강좌』 제46집, 일조각, 2010, 86~99면.
- \_\_\_\_\_, 『양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제14권, 정신문화연구원, 1991, 732~734면.
- 정재민, 『신라 무인담의 전승양상과 의미』, 『국문학연구』 제25집, 국문학회, 2012, 5~38면.
- \_\_\_\_\_, 『영웅형 무장의 원형 김유신』, 『동방문화비교연구』 제1집, 동방문화비교연구

회 2013, 183~198면.

\_\_\_\_\_, 『조선시대 국난기 순절무인담 연구』, 『한국군사학논집』 제70집 3호,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2014, 1~25면.

정재민, 『불학형 무인담의 전승변이와 사회문화적 의미』, 『한국군사학논집』 제73권 3호,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2017, 61~81면.

\_\_\_\_\_, 『호협형 무인담의 전승변이와 사회문화적 의미』, 『한일군사문화연구』 제26집, 한일군사문화학회, 2018, 321~351면.

한충희, 『무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제8권, 정신문화연구원, 1991, 187~188면.

\_\_\_\_\_, 『문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제8권, 정신문화연구원, 1991, 375~376면.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홈페이지 주소: <https://www.korean.go.kr>, 검색일: 2019. 8. 20.)

## A Study on the imagery of the military officer in the Joseon dynasty

Jung, Jae-min

The Joseon dynasty had been employed a policy of civilian government. It was based on the ground of the Confucianism. In this way, the Joseon dynasty had been discriminated against military officer, in favor of civil official. That was the representative policy that civil service had the superiority to military service.

The military officer in the Joseon dynasty had been recognized the five imagery which is the manly man, chivalry, patriotic martyr, good governor, virtuous man. The imagery of the manly man mainly had been expressed in his boyhood. The imagery of the chivalry, patriotic martyr, good governor had been revealed selectively after going into government service. On the other hand, the imagery of the virtuous man was the general and ideological point.

Therefore these five imagery have showed the internal aspect that is naturally, practically, ideologically distinctive quality. And then it is rated these five imagery because they have been situated the military officer's position among the yangban, the two upper classes of the Joseon dynasty. Additionally, these five imagery provide a criterion which have interpreted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military officer and civil official.

keywords: The military officer of the Joseon dynasty, imagery of the military officer, manly man, chivalry, patriotic martyr, good governor, virtuous man, policy of civilian government

접수일자: 2019. 9. 30.

심사기간: 2019. 10. 1.~2019. 11. 10.

게재결정: 2019. 11. 10.